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2월 7일(금)

---(음력 1월 10일)---

Пятница

7 февраля 2025 г.

№ 5 (1212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2월 7일은 러시아에서 동계 종목 스포츠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고르니 워즈두흐'스키장. '네왈라쉬카'스포츠학교 학생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주민 요청안 시행에 1억8000여만 루블리 책정

사할린 주민이 주도한 44개의 요청안을 2025년에 지역예산으로 실현시킬 예정이다. 이에 총 비용 1억8,270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이 결정은 사할린주 정부 소속 경연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몇 년 만에 주민참여예산은 정부와 사회단체 간 상호작용의 업무로 자리잡았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거지 주민들은 건물, 도로 변 보수공사, 공원 및 소공원, 놀이터와 스포츠 시설 정비작업, 거리 조명 설치에 대한 제안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역정부의 경연을 통해 우승 기획안을 선정하여 실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참여예산 덕에 우리는 우리의 도시와 마을들에 쾌적한 조건을 조성하고, 제반시설을 개선하여 그 결과 주민들의 생활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사회적 공간 정

비사업에 목표를 둔 23개의 기획을 지원했다.

이는 소공원들의 조경작업과 개선 및 새로운 휴식 구역 조성이다. 또한 조국을 위해 전몰한 국민영웅들의 기념 장소 재정비에 따른 기획들이 추진 비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청안은 우리 국민의 역사적 기억을 보전하고, 세대간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확실하게 우리의 지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포로나이스크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요청안이 접수되었다. 공모전에 15개의 요청안이 제출되어 이 중 10개의 요청안을 우승해 올 연말까지 실현시킬 계획이다.

이 지역 중심에 '미르'영화관 입구를 보수 공사하고, 제7호 중학교 구역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며, 참전용사들의 오솔길을 개건할 예정이다. 와흐루세워 도시형 마을과 자바이칼레츠 마을에는 조속히 거리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워스토크 마을에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에네르게틱'문화회관 앞 LED조명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말리놉카 마을에는 학교에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마트로소워 마을에는 기념 표지판 구역을 수리할 예정이다.

사할린주 재정부 올가 로파티나 장관은 "16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83개의 주민 요청안이 공모전에 접수되었다. 그중 5개 요청안은 규정 요건에 맞지 않아 거부되었다. 나머지 요청안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현실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평가하여 우승 요청안들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사할린주에서 시작되어 지난 8년간 사할린지역에서는 350개가 넘는 주민 요청안들이 실현되었고, 지역 예산에서 이를 위한 자금으로 약 10억 루블리가 조달되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단신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길에 나서

2024년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할린동포들이 영주귀국 길에 나선다.

단체 입국을 원하는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적십자사의 인솔로 이번에 2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해야 했는데 동해상의 강한 파도와 바람이 예측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은 2월 8일로 미뤄졌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에 따르면 단체 입국으로 이번에 사할린에서 약 75명이 배로 가게 되었다.

개별입국을 원하는 동포들은 주로 항공편으로 가기로 했다.

작년에 영주귀국 대상으로 270명이 선정되었다.

사할린 농업인들, 장비를 교체

지난 5일(수) 사할린 주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로스아그로리징" 파벨 코소브 대표 이사를 단장으로 한 회사 대표단을 만났다. 벨리크 총재에 따르면 농업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 분야는 수년 동안 지원을 받아왔다. 기술적으로 산업을 재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장비에 대한 농부들의 요구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최종 목표는 섬 주민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로스아그로리징" 대표는 주택 및 유틸리티 부문, 운송 시스템 및 기타 경제 분야의 요구에 맞는 기계 공급을 심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콘스탄틴 이스토민, 쿠릴스크 지역 시장으로 임명

2월 5일, 제30회 임시회의에서 쿠릴스크 지역의회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콘스탄틴 이스토민을 쿠릴스크 자치체 시장으로 승인했다. 그는 취임 선서를 한 후 시장 직을 수행한 것이다. 취임식은 2월 7일(금) 열릴 예정이라고 "사회 정치 신문 크라스니 마야크" 텔레그램 채널이 전했다.

사할린, 또다시 눈보라

2월 4일 (화)부터 사할린에 시작된 눈보라는 6일(목)까지 계속 몰아쳤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토마리에서 가장 많은 강설량이 기록된 가운데 이곳에서는 24시간 내내 제설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도로가 폐쇄되었다가 2월 6일에 상황이 개선되었고, 와니노-흙스크 노선도로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의 항공편은 실제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된다. 주내 총 700대의 특수차량과 약 400명의 도로 근로자들이 연방, 지방 및 지역 도로의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2월 5일, 6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었다.

사할린에서 <행복한 모성> 새로운 지역 프로그램 시작

2025년을 사할린주에서 '행복한 모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임마가 되기로 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사할린 지역은 <행복한 모성>이라는 단일기획에 통합시킬 독특한 업무개발 및 시행을 위한 행사장이 된다.

사할린 지역 프로그램이 전략청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가운데 프로그램 준비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행복한 모성을 위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되어 토론의 조정자로서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나섰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음력설을 맞이하여

'에트노스'학교의 독특한 '사할린의 한식'축제

지난 2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는 매우 활기찬 온기가 돌았다. 이날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한민족문화예술과가 음력 설맞이행사를 열었다.

'에트노스'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음력 설행사로 주로 아름다운 공연을 펼쳐왔다. 최근에 들어 학교에서 더 창의적으로 이 행사를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진행했다. 연극이나 미인대회, '골로스(보이스)쇼'로 다채롭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학교 측에서 박람회 및 요리경연대회를 하기로 했다. 행사 명칭은 <사할린의 한식>이었다.

7개 팀이 우승자리를 놓고 경쟁했는데 각 팀은 미리 주제를 정하고, 선택한 주제에 맞게 판매테이블을 장식해야 했다. 그리고 주제에 맞게 행사장에서 아니라 사전에 경쟁요리를 해놓아야 했다. 선택한 주제는 한민족 전통요리에 사할린의 요소가 있어야 했고, 또는 사할린 (러시아) 요리에 한민족의 요소가 섞여 있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팀들은 학생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하였다.

심사위원으로 이 행사에 초대받은 필자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교장 안나 위로호와,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비라,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 대표로 사할린한국교육원 강사 김미경 심사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음식제품으로 가득찬 각 팀의 판매장을 돌아보고, 요리준비과정에 대한 발표를 본 후 완성된 요리를 맛보았다.

각 팀이 준비한 요리판매장은 아주 잘 장식돼 있었고, 다양한 요리가 만들어져 판매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요리에 대한 발표를 보면서 참가자들의 창의력에 놀랐다. 요리 발표는 노래, 비디오, 춤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 응원이 대단했다.

또한 참가팀들은 자체 개발한 독창적인 레시피를 따라 요리를 하고. 요리 중에는 한국 전통 요리 레시피에 사할린에서 자라는 열매 - 크라스니카, 또는 브루스니카를 추가해 넣은 경

우가 많았다. 비빔밥, 떡케이크, 화채가 그랬다. 한 팀은 사할린 생선인 송어로 새로운 레시피의 비빔밥을 만들어 감동시켰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정말 잘 어울러지는 조화로운 모습을 보였다.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런 행사를 해낼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주로 판매장을 지키고, 학생들은 무대에서 요리발표를 하며, 어떤 부모들은 학생과 함께 한 무대에 서기도 했다. 가족적 따뜻한 분위기와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풍경이 펼쳐졌다.

모든 팀이 매우 창의적으로 주어진 과제에 접근했고, 훌륭하게 요리를 완수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는 평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판매 식탁의 미적 장식', '선택한 주제와 요리 장식의 일치', '요리 장식의 창의성과 요리에 창의적인 접근 방식', '요리 레시피의 독창성', '준비한 요리의 맛과 품질', '요리 판매 수익' 등이었다. '동양과자'팀(2학년 및 4학년)과 '물고기 섬'팀(6학년) - 두 팀이 우승했고 2위는 '김장'팀 (3학년), 3위는 '사할린 야생식물'팀 (5학년)이 차지하였다. 이들에게는 상품으로 노래방, 놀이방, 트램펄린 센터, 영화관 이용권이 주어졌다.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학생들의 열정이 더해지고, 참석자들에게 맛과 흥을 더해주어 흥겹고 뜻깊은 설행사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찾은 방문객이 많아 이 문화센터 강당은 아주 좁아 보였다. 한 방문객은 "오늘 친구의 소개로 가족과 함께 왔어요. 즐겁고, 재미있고, 여러 요리도 맛볼 수 있었고, 공연도 멋졌어요. 우리 가족 모두 마음에 들어하네요. 조직은 잘됐는데 행사장이 좁아 보일 정도로 찾아온 사람이 많아 앞으로는 더 넓은 행사장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에트노스'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도 관객들의 큰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전통적인 <체호브 작품 강독> 진행

1월 3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28회 <체호브 작품 강독> 지역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올해 행사에는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역사 및 항토역사의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자를 비롯한 언어학자 60명 이상이 참석했다.

주 정부 블라디미르 유슈크 부총재는 콘퍼런스 개막일에 "올해가 안톤 체호브의 탄생 165주년 기념의 해이고, 사할린으로 여행 135주년을 맞으며, '섬 사할린' 책 특별 출간 130주년을 맞는다. <체호브 작품 강독>은 체호브의 탄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박물관들과 도서관과 극장과 고문서기관을 비롯한 기관들에서 주제별 순차적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전작품 연구의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되고, 콘퍼런스 참가자들이 준비한 연구논문 발표를 듣는 것은 항상 흥미롭다. 그들의 결실 있는 연구작업을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학술회의는 전체회의로 시작되어 그 일환으로 체호브 책 박물관의 예브게니야 피르소와 관장이 새로운 상설 전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관장의 말에 따르면 곧 체호브 책 박물관이 좀더 실제적이고, 더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박물관의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체호브 책 박물관은 항상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Традиционные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прош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1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а традиционн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XXVIII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ло более 60 ученых, педагогов и филологов, чтобы обсудить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стории и краеведе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тмечаем 165-летие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 П. Чехова, 135-летие со дня 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на Сахалин и 130-летие с момента выхода книги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тдельным изданием. Конференцией "Чеховские чтения" мы не только отмечаем юбилей Чехова, но и открываем череду тема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весь год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наших музеях, библиотеках, театрах, архивах и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ях. Всегда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о новых гранях изучения творчества классика, услышать доклады,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и я желаю им плодот-

ворной работы,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шук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ртовала конференция с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директор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представила концепцию новой постоя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По ее словам,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музей начнут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чтобы сделать его 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м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всегда идет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 сказала она.

사할린 <러시아 스키 경주> 참가자들, 무료버스 이용해 진행지까지 갈 수 있어

<러시아 스키 경주> 참가자들을 위해 행사장인 트로이츠크에 마을까지 무료버스를 운행한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버스 승차장은 포베다광장과 레닌광장, 다른 또 하나는 노위알렉산드롭스크의 32호 중학교와 루고위에 30호 중학교에서 출발하며, 승차 시간은 오전 9시이고, 돌아오는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러시아의 스키 경주>전국 대중 스키경주대회가 2월 8일 (토) 아니와 지역 트로이츠크에 마을 스키코스에서 개최된다.

스키 경주에서 연령 2세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신의 스키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종목은 200(가장 어린 참가자들 대상)m, 500m, 1000m, 5km, 10km 에 참가할 수 있다. <러시아의 스키 경주> 개막식은 11시 30분에 진행되며, 첫 출발은 12시이고, 시상식은14시에 진행된다.

Участники «Лыжни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смогут добраться до места проведения на бесплатных автобусах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организуют бесплатные автобусы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Лыжни Росс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три автобуса будут ждать лыжников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и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Еще по одному отправятся от СОШ № 32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и СОШ № 30 в Луговом. Отправление в 9:00. Вернуться обратно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с 9:30 до 16:00.

Всероссийская массовая лыжная гонка «Лыжня России» пройдет 8 февраля на лыжной трассе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на лыжне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в возрасте от 2 лет и старше.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ожидать дистанции 200 м (для самых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500, 1000, а также 5 и 10 км.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Лыжни России» состоится в 11:30. Первые старты

пройдут в 12:00. Награждение в 14:00.

사할린 대학생,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

사할린 예술대학의 4학년생 빅토리아 타라스ова가 제16회 사마리 일리츠 샵쉰스키 국제 음악콩쿠르 '비올라'부문에서 2등을 차지했다고 문화고문서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언급했다.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 음악콩쿠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알렉산드르 이와노비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음악, 연극, 가무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빅토리아는 2차에 걸친 경쟁의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라브리크 장관의 언급한 바에 따르면 앞서 빅토리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인재센터의 국가지원문화기관이 조성한 2025년 사할린 지역 예술부문 청소년 연주자 선발전도 통과했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우승은 빅토리아의 높은 훈련의 수준과 전문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을 확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ая студентка стала лауре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Студентка 4 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Виктория Тарасова завоевала звание лауреата II премии (номинация "Альта") XVI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имени С.И. Савшинского. Об этом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егиона Нонна Лаврик.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с 27 января по 1 февраля в Институте музыки, театра и хореографии РГПУ им. А. И. Герцен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иктория смогла успешно исполнить сложную программу в двух конкурсных турах.

Как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ранее девушка прошла отбор Сахалинск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молодежных игр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 2025 года,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ГБУК СОРЦ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бед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подтверждает 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стремление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росту.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뮤지컬 링> 개최

2월 1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주 민속창작센터센터에서 <뮤지컬 링>이 개최된 가운데 심사위원으로 나선 217명의 관객들 앞에서 두 음악 그룹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8면에 계속)

민주평통, 2025년 러시아동부협의회 신년하례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러시아동부협의회(회장 황돈연)는 2월 1일 오전 11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황돈연 협의회 회장,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 하병규 총영사, 블라디보스토크한국어교육원 문평길 원장, 연해주한인회 이동명 회장, 이산가족협회 이영자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과 고문가족 30여 명이 참석해 러시아동부협의회 의회 의 평화통일 번영을 위한 발전의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식은 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 평화통일의 당면한 과제와 미래 지



속 가능한 번영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다짐과 설 덕담으로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글과 사진 러시아동부협의회 제공)

사할린에서 <행복한 모성> 새로운 지역 프로그램 시작

(1면의 계속)

토론평마당에는 주정부 구성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대표들, 의료단체, 사회연합회, 다자녀 가구의 어머니 대표들 100여 명이 이상이 참석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인구통계학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 지난해 말 국무원 회의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족제도의 강화와 출산장려를 과제로 제시했다. 사할린주는 단순하지 않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매우 야심찬 계획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사할린 지역은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자기실현을 성공적으로 겸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해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현대 사회학자들은 출산율 감소 추세가 러시아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과학자 알렉산드르 코니코브는 "지금까지 사할린주는 극동지역에서 합계출산율에 따라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러시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추세는 사할린 지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단순히 국내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 연령의 여성 10명당 21명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 정도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잠재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젊은 여성의 수적 감소를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인구통계학적 실태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경제적 조치를 비롯해 문화적, 사회심리학적 사려 깊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행복한 모성> 새로운 주 프로그램의 시작은 시기적절한 추진이라고 여기고 있다. 세미나 참가자 중 다자녀를 둔 엘레나 크라실니코와는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하므로 되도록이면 늦게 출산해야 한다는 서구지역에 널리 퍼진 경향을 꺾어야 한다. 이는 여성을 오류로 이끄는 거짓된 사실이다. 나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지역 지원정책 덕에 경력 단절이 안되도록 조기에 직장에 나갈 수 있었다. 보조금도 매우 양호하고, 양호한 출산수당으로 보모를 구할 수 있었다. 모성은 여성의 구성요소이자 여성에게 있어서 심리적 근본의 토대이며, 자아실현의 기초이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할린 지역에서는 1년에 90억 루

블리 이상의 재정 지원금으로 50개의 사회적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의 사회복지 부문은 사회에서 모성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임신부와 어머니를 돕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려. 보호. 존중> 주 프로그램은 사할린의 임신부를 위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고, 의료기관에서는 출산에 대한 결정 단계, 임신했을 때, 출산 후 등 여성을 곁에서 돕기 위한 심리학자를 유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를 계획하는 근로 여성은 고용주와 협력 속에 재교육의 기회로 경력 향상을 위한 개인적 계획을 구성하고, 원격 또는 유연한 업무 일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할린 보건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 장관은 "우리에게는 <행복의 안내자>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이는 임신부 여성을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주민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업무에는 임신부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필요한 전문가와 예약 조성에서부터 모든 개인적인 요청에 이르기까지 무슨 문제든 해결하도록 임신부를 돕는 법을 배운 16명의 안내자가 활동한다. 또한 도시 조산원을 거점으로 가족건강센터를 창설해 남성과 여성이 생식기 체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검사와 포괄적 진단으로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며, 다른 중요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족건강센터는 앞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만 아니라 주 전 지역에 개설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과 대학생 부부를 포함해 가족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요청이 언급됐다. 세미나에서 채택된 우수한 제안들은 봄 전까지 최종적으로 구성될 지역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3월 8일쯤 사할린의 여성들에게는 선물이 될 전망이다.

극동 연방관구 전략주도청의 올가 쿠릴로와 청장은 "2024년 주민 생활의 품질 순위 집계 결과 사할린주는 러시아 전 지역들 중 7위를 차지했고, 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할린주가 인구통계적 문제 해결책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것은 중요하다. 사할린주는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략주도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둔 가정 지원책에 사할린 주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었다.

앞으로 지역에서 시행될 새로운 프로그램 정책은 가정과 출산, 다자녀 지원이 체감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음력설 맞아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열어>기획 일환으로 제2회 웃놀이 한마당 진행

작년 2월 초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열어>기획의 일환으로 웃놀이대회(전통놀이 한마당 웃놀이)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 기획 총 담당자인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그때 앞으로 웃놀이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약속한 대로 올해도 음력설을 맞아 지난 1월 3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열린 웃놀이대회가 흥겹게 진행되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대회에는 <무한한 지식의 원천을 열어>기획에 참여하는 교육기관, 단체, 스포츠협회 등의 대표들로 교사와 학생, 회원, 사범과 선수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12팀(60명, 파란색 6팀, 보라색 6팀)으로 나뉘어 6테이블에서 경기를 벌였다.

작년과 같은 한국원어민으로서 사할린한국교육원의 정승훈 원장·김미경 강사, '아리랑' 장학회 회원들인 '그린 팔라스'건설회사의 권운호 대표이사·박준형 재무이사, '한국관'의 주기호 대표와 추은경 내외가 각 테이블을 맡아 웃놀이 진행을 도와주며 감독하고, 심판을 하였다.

팀들이 웃판을 벌이기 전에 사할린한국어교사협회 회장이자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한국어교수인 인나 코르네예와는 웃놀이에 대해 잘 모르는 대다수 참가자들에게 웃놀이의 규칙, 놀이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테이블에서 웃놀이 3판을 진행하여 우승팀을 선정했다. 우승팀 모두 배지를 받았고, 결승전은 우수팀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팀에서 우수한 웃 실력을 가진 참가자 한 명씩을 뽑아 결전에 나서게 하여 보라색 대표팀과 파란색 대표팀 간에 막판승부가 진행됐다. 결승전은 한 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선수를 응원하는 양팀의 응원은 실내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파란색'대표팀이 우승해 같은 색의 모든 팀원들과 우승의 기쁨을 나누며, 30명 모두 한국관 이용권을 상품으로 받았다.

즐겁게 진행된 행사는 맛있는 다과회로 마무리되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뱀과 함께 음력설 맞이

최근에 사할린에는 한민족 문화에 관심을 가진 여러 한인단체들과 교육 및 연구 기관들이 음력설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1월 29일이 음력설이었다. 사할린에서도 정월 대보름까지 즐거운 음력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

1월 25일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노인정이 각자 음력 설맞이행사를 갖고, 코르사코브한인회(회장 박창순)는 1월 31일 '바르한'카페에서,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회장 유경숙)는 2월 1일 '서울'레스토랑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게임과 경연을 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지난 2월 1일(토)에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곤)의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5별'레스토랑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역시 음력 설맞이행사가 펼쳐졌다.

행사에는 '러시아 인민 전선' 사할린 본부의 알렉세이 카잔체브 공동대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의회) 타치아나 루다코와 부의장, 사할린한국교육원의 정승훈 원장, 사할린주한인연합회 유영희(유예니)부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많은 따뜻한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돕고 있는 '빅토리아'장애아단체의 특별한 아이들의 '뽕아리 춤' 축하공연이 인상적이었고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개나리'무용단의 무대가 역시 명절 기분을 돋우었다.

'사할린한인'시한인회 설립 시 단체는 자체 찬가를 만들어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를 부른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 미하일의 즐거운 진행으로 여러 쿵쿠르와 게임, 복권 추첨이 진행되었다. 복권 추첨에서 상품 30개가 있었는데 주요 상품은 냉동고였다.

이날 원하는 사람들은 을사년의 상징인 살아있는 뱀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행사에는 2세 동포만 아니라 3세대도 참여했다.

함께 웃고, 놀고, 춤추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동포사회가 갈등을 접고, 서로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취재: 배순신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й хансик» покорила зрителей и жюри

«Этнос» провел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в формате ярмарочно-кулинарного конкурса

Очень активное и праздничное воскресенье выдалось на отде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педагоги, учащиеся и их родители отметили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ДШИ «Этнос».

2 февраля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ел ярмарочно-кулинарный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ий хансик», который удивил и покорила всех зрителей и членов жюри неповторимой дружеской и творческой атмосферой.

7 команд бились за победные места. До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я каждой команде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определить тематику своего ярмарочного стола и оформить ег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выбранной тематикой. Темы должны были отражать корейскую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хн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интерпретации или наоборот сахалинские кулинарные изыски с элементами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Далее всем командам нужно было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дукцию для своего ярмарочного стола и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дажу данной продукции. Также презентовать свое уникальное фирменное блюдо из меню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и, выполненное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оригинальному рецепту,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этого блюда и представить блюдо членам жюри на дегустацию.

Членам жюри пришлось очень непросто, так как все команды очень творчески подошли к выполнению своей задачи и блестяще справились с ней. Команды оценивались по следующим критериям:

- «Эстетическое оформление стола, соответствие оформления выбранной тематике»
- «Креативность, творческий подход в презентации своего блюда»
-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рецепта кулинарного изделия»
- «Вкусовые качества конкурсного блюда»
- «Объем вырученных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за продажу продукции»

В результате соперничества победи-



телями конкурса стали следующие команды:

- 1 место - команды «Восточные сладости» (2, 4 класс) и «Рыба-остров» (6 класс)
- 2 место - команда «Кимдьян» (3 класс)
- 3 место -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ие дикоросы» (5 класс)

Члены жюри наградили команды призами: бесплатное разовое посещение караоке, игровой комнаты «Стория», батутного центра и кинотеатра.

Помимо конкурса посетители мероприятия могли также насладиться концерто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тделения и побаловать себя различными вкусностями на ярмарке.

Фото ЛИ Е Сик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акция, приуроченная Соллаль

23 января 2025 года сотрудник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재외동포청) совместно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АКРК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юз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КРК и Молодежного движения АКРК провел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ую ак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празднику Соллаль (Лунный Новый год), в Центр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г. Инчхон.

Это событие объединило неравнодушных людей, готовых делиться теплом и заботой. Добровольцы помогали в раздаче пищи, уборке и поздравляли пожилых людей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создавая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трапезы 72-летний Ким Ён Ги отметил: «Корейцы из бывшего СССР —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ужно заботиться о них». 77-летняя Ли Сук Гён добавила: «Уже само то, что так много людей пришли в такой холодный день, приносит огромное утешение», искренне поблагодарив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ась бесе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КРК с Главой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

цев, г-ном Ли Сан Доком. Члены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АКРК Ким Сергей и Огай Екатерина подняли вопросы совмест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также обсудили темы, касающиес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молодежи корё-сарам, проживающей в Корею.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предложению о внедрении стипенд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не только для студентов, но 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их учебную мотивацию и поддерж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участие корёинов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пособствует их интеграции в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и укрепляет чувство единства сред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опросы корёинов находятся в приоритете для Агентства, которое уделяет и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одобны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инициативы напоминают нам, что, проживая в Корею, корё-сарам способны вносить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а, занимая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и укрепляя связь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АКРК)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игру ЮННОРИ поигр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1 января в рамках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Второй открытый турнир по настольной игре юннори (윷놀이).

Участниками игры стали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школьник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ктивист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 дошкольных учеб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портсмены-тэквондисты, борцы ссирым. 60 человек были поделены на 12 команд. Их ждали интересные захватывающие поединки.

Помогали освои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корейскую игру корейцы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уже давно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турнира стали ИФИИВ СахГУ, ООО «Са-



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М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ртнерами выступили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сторан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Хангукван», строительная компания «Грин-Палас».

Наш корр.

В Новый год с живой змеей

1 феврал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отпраздновала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одном из ресторанов города, собрав около 200 чел.

На праздник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много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душевно поздравили сахалинцев с Новым годом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который вступил в свои права 29 января.

Слезы умиления от выступления особенных детей, яркое красоч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ДШИ «Этнос», проникновенное исполнение гимна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 Ханин», веселые конкурсы и розыгрыши от ведущего Михаила У, фотосессия с живой змеей, розыгрыш лотереи, зажигательные танцы — все это создало неповторимую атмосферу новогоднего праздника.

Наш корр.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КРК пригласили на ужин к спикеру парламента РК

29 январ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КРК Тен Жанна и Но Александр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на новогодний суп 떡국 в резиденцию спикер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 Вонсика.

Приглашение на суп 떡국 (ттоккук)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это не просто приглашение, а жест уважения, дружбы и семейного тепла.

Для нас,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из стран СНГ, Новый год всегда был особенным семейным праздником, который мы отмечаем 1 января. Но,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мы словно возвращаемся к своим корням. Теперь этим праздником стал для нас и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который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лся 29 января.

Этот день стал ещё одним поводом собраться за столом и почувствовать то самое тепло, которого так не хватает вдали от родных. Именно в такой тёплой и искренней атмосфере прошёл новогодний ужин в резиденции спикера Парламента Кореи У Вонсика. За праздничным столом, накрытым лично супругой спикера, собрались близкие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и.

Вечер запомнился интереснейшим общением и особенными моментами.

Обсуждали передачу оригинальной фотографии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с его личной подписью, хранившуюся в семейном архиве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Чен Валентина, который преподнёс ее в дар президенту



АКРК Тен Жанне, решившей передать эту бесценную реликвию Мемориальному Обществу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мдо.

Но самое трогательное воспоминание вечера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спикер У Вонсик показал семейную реликвию, хранящую память о его деде, выдающемся борц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Ким Хане. Как и многие борцы, Ким Хан пережил тяжелую судьбу и в 1930-х годах стал жертвой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в СССР. Эта реликвия стала символом общей борьбы и связала нас, корё-сарам и хангук-сарам, невидимыми нитями истории, воли и надежды.

За ужином Тен Жанна сказала: "То, как принимает на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сарам, сам спикер Кореи, даёт надежду, что скоро всех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цев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здесь как своих братьев и сестёр."

Этот вечер был больше, чем просто ужин. Он напомнил нам, что дом — это не только место, где живут родные, но и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ют тебя с теплом и пониманием.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АКРК)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Юн Сок Ёлю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в нарушении Конституции

3 февраля прокуратура приняла официальное обвин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в отношении Юн Сок Ёля, временно отстранённого от долж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решение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и находящегося под стражей. В документе объёмом более ста страниц приведены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нарушений Конституции и уголов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К, допущенные при объявлении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3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куратур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ла действия Юн Сок Ёля как «попытк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военных и полиции». Кроме того, сделан вывод, что чрезвычайное положение было введено с целью подрыва основ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троя и уничтожен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В документе содержится информация, что Юн Сок Ёль и бывший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 обсуждали развёртывание войск. Прокуратура также пришла к выводу, что указ, обнародованный сразу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ротиворечит Конституции и законам страны.

Г.Зиновьев: РК не поставляет летальное оружие Украине

Хотя некотор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периодически выступали с заявлениями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смотра решения о непоставках леталь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в зону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до практических шагов в этой сфере дело не дошло.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газете «Известия»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К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Кроме того,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поставок оружия Украине. Они относятся к России «мудро, дружелюбно и в целом объективно», - подчеркнул дипломат. Несмотря на значительные различия в оценке первопричин и путей решения различ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блем, диалог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аналам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 основе взаимоуважения мнений обеих стран. В условиях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антироссийским санкциям западных стран РК проявляет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к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В частности, наращиваются поставки товар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щевой, 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сме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В РК растёт интерес к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е,- подчеркнул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В 2024 году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РК превысил 36 тыс. долларов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валовой внутренний продукт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РК превысил 36 тыс. долларов.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Банка Кореи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н оценивается в сумму 36.024 доллара, что на 454 доллара или 1,28%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выше японского, который, по оценк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алютного фонда, составил 32.859 долларов, и тайваньского, составившего 33.234 доллара.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РК был рассчитан на основе роста номинального ВВП на 5,9% от показателя 1 трлн 65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2023 году и среднего курса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1.363,98 воны за доллар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в 2024 году оценивалась в 51 млн 750 тыс. человек.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ВВП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превысит 37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Большин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 политические перемены

Численность сторонников политических перемен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цев превзошло численность желающих сохранить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нынешней власти.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ов,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тремя основными телеканалами стран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Hankook Research по заказу KBS, 50%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что смена в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ав, тогда как 39%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го мнения. Опрос, проведённый агентством Korea Research International по заказу MBC, также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половина опрошенных хотят смены власти, а 44% выступают за стабильность.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проведённом агентством Ipsos по заказу SBS, 50% опрошенных выступают за политические перемены, а 43% против. Что касается импичмента Юн Сок Ёлю, то его поддержали почти 60% участников всех трёх опросов, а от 36 до 39%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ступили за его возвращение к власти. Что касается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то большинство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ывали лидер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Чжэ Мёна. Далее следует министр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Ким Мун Су.

В 2024 году РК посетили 16,37 млн иностранцев

В 2024 году в РК побывали 16 млн 370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Как сообщила Корей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это на 48,4%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а также 94% от уровня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2019 года.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бывавших в РК, бы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 4 млн 600 тыс.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Японии, Тайваня и СШ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за рубежом побывали 28 млн 690 тыс. южнокорейцев,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ровню 2019 года.

RKI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узы борются за выживание из-за нехватки студен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стремительно теряют студентов. Сниже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привело к резкому падению числа абитуриентов, из-за чего вузы вынуждены бороться за выживание. Многие из них уже начали процесс слияний, 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нициировало программу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днако эксперты опасаются, что такие меры приведут к упрощению системы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окращению е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Хотя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мире и приток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РК растёт, но тут тоже хватает подводных камней, и вряд ли зарубежные абитуриенты смогут стать "спасением". Судя по ситуации, сокращение вуз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неизбежно, так как главная проблема -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кризис, который безуспешно пытаются преодолеть уже более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удар по вузам

По поводу сниж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абитуриент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говорят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однако сделать что-то пока не получается. Все это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куда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х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ась страна - резкое сниже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старение общества при огромном количестве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Напомни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антирекордсменом по показателю рождаемости. Хотя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ситуация стала несколько улучшаться, но все равно на одну женщину приходится сейчас менее 0,8 ребенка. Это при том, что для обычн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необходимо 2,1, то есть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больше.

Всё это немедленно отражается и на количестве абитуриентов. Как отмечает англоязычное издание TheKorea Times, ссылаясь на данные Корейского совета по высшему образованию,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упающих в университе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снизится с 440 тысяч в 2023 году до 260 тысяч в 2040 году. Уже с 2021 года число абитуриентов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становленным квотам приема, проще говоря - абитуриентов меньше, чем предлагаемых мест.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 эта проблема ударила по вузам за пределами Сеула. Первая десятка наиболее престижных вузов,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которых находится в столице, по-прежнему имеет неплохие показатели. В них количество желающих поступить превышает квоты, что создает конкуренцию, но за пределами Сеула все наоборот. Нередки ситуации, когда количество заявлений на прием меньше, чем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набор.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кой конкуренции региональ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испытывают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с набором студен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они все чаще прибегают к стратегии объединения,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и повысить свою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Кроме того, к этому их подталкивает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сокращая поддержку непопуляр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ам и подталкивая их к слияниям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 "повышения финансовой эффективности".

Так,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окпхо и Нацио-

Рост цен превышает рост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В то время как темпы роста ежемесяч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работников замедляются уже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продолжают расти.

Это привело к самому большому со времён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разрыву между трудовыми доходами и инфляцией.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заработка южнокорейца составил в 2023 году 43 млн 320 тыс. вон (30 тыс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2,8%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а также самый низкий рост зарплат с 2020 года, когда он составил 2,3%. Он оказался ниже среднего роста и ниже среднего темпа роста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составившего 3,6%. При этом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цены в 2023 году выросли на 3,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Поскольку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осла медленнее, чем цены, разрыв между трудовыми доходами 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ми ценами составил -0,8%. Отрицатель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храняется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В 2022 году он составил -0,4%.

(KBS World)

Фильм «Хитмэн-2» лидер проката

Фильмы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тали лидерами проката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оллаль.

Фильм «Хитмэн-2» режиссёра Чхве Вон Сопы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С 25 по 30 января его посмотрели 1 млн 268 тыс. зрителей, что составило 38,6% всех посетителей кинотеатров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Общее число просмотров с момента выхода в прокат – 1 млн 510 тыс. человек.

Фильм «Чёрные монахини» режиссёра Квон Хёк Чэ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собрав 1 млн 5 тыс. зрителей (31,4% посетителей кинотеатров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Общее число зрителей составило 1 млн 180 тыс. человек

Фильм «Харбин» режиссёра У Мин Хо, вышедший на экраны 24 декабря,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в прокате. Число зрителей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21 тыс. человек, а общее число просмотров достигло 4 млн 800 тыс.

(KBS World)

У песни «APT.» более 1 млрд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Музыкальное видео песни «APT.» певицы Rose из женской группы BLACKPINK набрало более 1 млрд просмотров на платформе YouTube.

Как сообщила компания The Black Label, рекордную отметку видео преодолело 31 января. Видео было загружено 18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миллиард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понадобилось 105 дней. Это минима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не только для певцов из РК, но и из Азии в целом.

Предыдущий рекорд среди азиат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составлял 158 дней и принадлежал песне Gangnam Style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евца PSY. Он был установлен 12 лет назад.

По скорости достижения миллиард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APT.» занимает пятое место среди всех мировых музыкальных клипов.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песня «Hello» британской поп-звезды Адель, которая достигла миллиарда просмотров за 87 дней.

(KBS World)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узы борются за выживание из-за нехватки студентов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5)

Угроза сокращения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Эксперты указывают на серьезную проблему, которая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массовым слиянием вузов, - это возможное исчезновение целых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готовки. Как отмечает Пак Чжу Хо,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 естественное 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а вузов из-за сниж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неизбежно, но политика цент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лишь ускоряет этот процесс.

Специалисты также сомневаются, что объединение университет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может оживить региональную экономику. Южная Корея десятилетиями строила свою модель развития на концентраци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экономики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 Сеуле, Инчхоне 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надеяться,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узы смогут остановить отток молодежи в мегаполисы,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наивно.

Кроме того, слия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риводят к закрытию неконкурентных факультетов, что может негативно сказаться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е страны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Например, в процессе объединения вузов многие гуманитар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могут быть признаны нерентабельными и закрыты.

Как отмечает Сон Ги Чхан, почетный профессор Же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укмён, если вуз решае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ться в одной области, а эта область в будущем теря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он может столкнуться с серьез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Когда университеты ориентируются только на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 рынок труда, это может помешать долгосрочному развитию страны. Мы видим тенденцию к превращению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но это чревато потер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многообразия," - подчеркивает профессор Сон в интервью изданию The Korea Times.

Рост популяр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факультетов

Впрочем, есть направл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ому проблемы нехватки студентов пока не грозят. В Южной Корее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корейцы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оступление в медицинские школы как гарантированный путь к успешному будущему.

В 2024 году число поступающих в 39 медицинских школ Южной Кореи выросло на 29,9%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 достигло 10 519 человек. В то же время число заявок в один из лучших вузов страны -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KAIST) и други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снизилось на 28%.

Эксперты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такая тенденция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оттоку талантливых студентов из других сфер науки, а переориентация вузов на медицинс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риведет к перекосу в структур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нов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В 2025 году, объявленн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новая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поддержки женщин, решивших стать мамами.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и внедрения уникальных практик,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ят в единый проект под названием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созда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ее формированию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семинар «Стратегия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Дискуссионная площадка объединила более 100 участников - членов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рачеб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и многодетных мам. Модератором дискуссии выступ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вопрос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главным. От его решения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судьба нашей страны.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засед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ами задачу укрепить институт семьи и повысить рождаемос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работает над конкретным и очень амбициозным планом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непростой задачи. Регион намерен создать лучшие условия для женщин,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успешно совмещ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и творческую реализацию с материнством и при этом ничем не жертвовать,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семина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отмечают социологи, тенденция к снижению рождаемости сегодня наблюдается во всех развитых страна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России.

— До сих пор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суммарному коэффициенту рождаемо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ходит в десятку лидеров в России. Но тенденция сниж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наблюдается и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Чтобы население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росто увеличивалось, на десять женщин репродуктивного возраста должен приходиться 21 ребенок. Решение этой

Заграница поможет?

Очевидно, что система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ереживает трансформацию. Университеты за пределам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столкнувшись с нехваткой студентов, вынуждены либо объединяться, либо искать новые модели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олитика "глобаль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дает некоторым из них шанс на выживание, однако в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она не решает проблему сокращения числа абитуриентов. Все больше вузов ориентируются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специализацию, что приводит к закрытию многих факультетов и сокращению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В этой связи одним из способов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выглядит привлечение на учебу в Корею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Популярность Кореи как страны за рубежом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ее ведущие вузы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ятся в числе "лучших 100-200 вузов планеты". Увеличивается и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бы хотели учиться в Корее. Причем речь идет не только о самых лучших вузах,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с радостью готовы учиться в те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которые сами молодые корейские абитуриенты если 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то н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на апрель 2024 г.,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учатся в стране, превысило 2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ставив 208 962 учащихся. Это на 15%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Понятно, что такие темпы роста имеют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эффект "низкой базы", так как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но это не отменяет факта роста популяр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мест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Если брать по континентам и странам, 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Корею учиться едут из стран Азии. Так, на 2024 г. 90,8%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были из Азии, а затем с большим отрывом шла Европа (5,1%), Северная Америка (2%), Африка (1,4%) и Латинская Америка (0,5%). По странам тоже все очевидно: Китай - 34,5%, Вьетнам - 26,8%, Монголия - 5,9%, Узбекистан - 5,8%. То есть на эти четыре страны приходится почти три четверти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Корее.

Правда тут надо оговориться, что данные по иностранным студентам включают как тех, кто учится в РК "по полной программе", то есть намереваясь получить в Корее диплом, так и тех, кто приехал на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ый срок в качестве студентов по обмену или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авда, все же тех, кто намерен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в Корее, заметно больше, чем "временных" - 69,8% против 30,2%.

Однако и здесь хватает своих "но", которые ставя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методе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нехватки абитуриентов. Лидеры по числу привлеченных студентов-иностранцев - опять же вузы, базирующиеся в столице - Ханьян, Кёнхи и Ёнсе. Главная же проблем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в том,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их корейские дипломы, им остаться в Корее, мягко

проблемы - совсем непростая задача с учетом уменьшения когорты молодых женщин, которые потенциально могут стать матерями. Чтобы эффективно влиять н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ведение, необходимы продуманные меры - н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но и культурные и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октор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Александр Коньков.

Участники семинара уверены: запуск новой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 своевреме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ломить тенденц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на Западе - о том, что рожать нужно как можно позже, что важно пожить для себя. Это ложные истины, которые вводят женщин в заблуждение. У меня уже пятый ребенок. Благодаря региональным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мне удалось рано выйти на работу, чтобы не прерывать стаж. Пособия очень хорошие, хорошие декретные выплаты позволили подобрать няню. Материнство - это составляющая часть женщины, основа основ для ее психологии и реализации, - считает участница семинара, многодетная мама Елена Красильнико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егионе уже действуют 50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 объемом финанс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более 9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год. Социальный блок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прим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шаг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престижа материнства в обществе, помощи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и мамам. Так, областную программу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ланируют дополнить сервисами для беременных сахалинок, а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 внедрить психологов для сопровождения женщин на этапе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во время беременности и после родов. Для деловых мам, планирующих декрет,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едлагают формирова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ланы карьерного развития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ереквалификации 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или гибкого графика работы. В регионе начнут создавать институт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нянь, подключиться к этой работе предложат «серебряным» волонтерам и родственникам родителей ребенка. К примеру, бабушка сможет стать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ой няней для своего внука и получать

говоря, не так-то просто.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выпускники вузов РК хотели бы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но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и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осложняют процесс.

Не секрет, что иммиграционные службы РК с определенной настороженностью смотрят на выходцев из тех стран, что являются лидерами по части обучения в РК. К этим странам есть "вопросы" по части проблемы незаконной иммиграции. Обучение 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ША, Канады, Европы в Корее - это чаще всего либо языковые курсы либо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еся на Корее специалисты -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езначительна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Азии) прослойка и "погоды" он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татистики не делают. В целом то же само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и про россиян: поток, может, и растет, но в абсолютных цифрах в вузах РК во многие "разы" меньше граждан РФ, ч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Р, Вьетнама, Узбекистана.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центральные власти Кореи не работают над вопросам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 регулярно вводятся нов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несколько упрощают работу в стране, однако в целом проблема весьма серьезная.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разговоры пр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общество, жалобы на нехватку трудовой силы, снижение рождаемости, проблемы с абитуриентами и прочим, Корея как страна и корейцы как общество пока не спешат раскрывать нараспашку двери страны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Кроме того, часто послабл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ацелены на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других стран, хотя в общей статистике их учитывают как иностранцев. Подход чаще всего в Корее такой: "Поработать на законных основаниях, поучиться, тем более приехать как туристы - в таком случае мы иностранцам очень рады, но принять их в наше общество - тут давайте не будем торопиться. Вы приехали - это хорошо, но когда обратно?" Повторимся, подвижки и в этом вопросе есть. Корея нынешняя и Корея 20 лет назад очень сильно отличаются по част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олгоср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но все равно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явно не в авангарде списка государств с благоприят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ой, даже если речь идет об иностранцах,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в Корее.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дется решать, каким путем должно идти е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 сохранением академической среды или превращением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центр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Возможно, что-то придется менять и по части отношения к возможност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проучились в РК, хотя это тоже не сможет решить глобальную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студентов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вузах. В любом случае, конкуренция за студентов будет только усиливаться, а небольши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узы рискуют либо исчезнуть, либо полностью измениться, чтоб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новым реалия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бюджет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зуч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ткрыт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ясельных и дошкольных семейных групп, а также корпоративных детсадов при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Некоторые инициативы уже начали внедрять.

—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программа «Проводники счастья». Это консьерж-сервис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К работе привлечены 16 проводников, которые обучены, как работать с беременными, как помочь им решить любой вопрос - от организации записи к необходим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до любог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запроса. Также на базе городского роддома мы планируем создать центр семейного здоровья, где и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смогут пройти репродуктивный чек-ап, г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генетические обследования детей и оказывать другие важные услуги. Такие центры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оявятся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На дискуссии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и инициативы о решении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для семей, в том числе молодых и студенческих пар. Лучшие предложения, выработанные на семинаре, включают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которая окончательно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до весны и станет подарком островным женщинам к 8 марта.

—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в рейтинг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7 место сред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по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стала первой в стране. Важно, что в регионе уделяетс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 решению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го вопроса. 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хороший потенциал: исследования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новые программ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выработают в регионе, принесут ощутимый вклад в поддержку семьи, рождаемости и многодетности,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Ольга Курило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민족문학연구회, <민족문학사상> 3호 발간 중앙아시아, 러시아, 사할린 등 26명 고려인 문학 특집 1월 22일 박 미하일, 양 세르게이 등 재한 고려인 문인 초대 출간기념 만찬

(사)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산하 민족문학연구회가 문예지 <민족문학사상> 제3호를 발간했다. 특집에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사할린 등 26명의 작고 및 현존하는 작가들의 시와 수필, 소설 등 작품 30편을 실었다. 민족문학연구회는 지난 1월 22일(화) 충무로 아시아미디언타워에서 양세르게이, 박승의, 박미하일, 이정희 등 고려인 문인과 장라리사 등 관련자 10여명을 초대해 출간기념식을 갖고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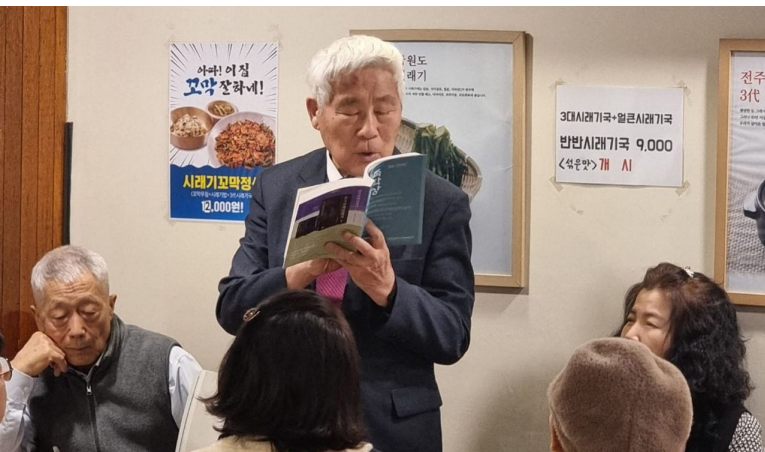
이번 <민족문학사상>에는 고려인 문학 특집을 비롯해 공광규(시인) 편집주간의 권두언 '대일항전기 친일매국문학의 기원과 문학상의 현재', 회원들의 시와 비평 등을 게재했다. 신작시에는 강대선, 강민숙, 권순자, 김림, 김희정, 송계숙, 오하린, 우동식, 유국환, 유종, 이기현, 이상인, 이인호, 조미희, 표성배 등 15명의 시인들이 민족과 통일, 노동 등 현실을 제재로 한 창작시를 실었다.

고려인 작가 특집에는 오래전 작고한 조명희('깃발한 고려' '10월의 노래')와 강태수('발 갈던 아씨에게') 등 모두 17명의 작품을 실었다. 김준('나는 고려인이다'), 김증송('시조'), 김율리('척탄병 ГРЕНАДЁРЫ'), 리 스타니슬라브('조국아 울지 마라' '조상들의 고향으로'), 리 바체슬라브('조선의 소나무 КОРЕЙСКАЯ СОСНА'), 김 블라디미르('회상열차 안에서 Поезд Памяти' '광주에 내린 첫 눈 Первый снег в Кванджу'), 김 마르파('환상 Фантазии'), 류드밀라 지지나 최('노스탈기야 Ностальгия'), 류준계('탄부의 이야기'), 장윤기('탄부의 편지'), 강순예('조국의 가을'), 허 로만('아버지의 노래'), 양수복('별이 타서 Отгорела звезда' '이곳의 눈은 녹은 지 오래고, А здесь давно растаяли снега.'), 장태호('멀고도 가까운 한국'), 이채인('모국 편지') 등이다.

수필은 김 아나톨리('서울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황유리('나의 할머니'), 김 게르만('고려 사람의 고백'), 박승의('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 최 빅토리아('우리들의 고향') 등 5명의 작품을 실었다. 소설은 김 아나톨리('묘꼬의 들장미'), 박 미하일('해바라기'), 블라디미르 김(용택)('호수계를 잡으러 가다'), 이정희('그날 밤') 등 5명의 작품을 실었다. 유은재 빅토르최기념사업회 회장(전 고려인청소년학교 및 동대문고려인학교장)이 '고려인의 문학과 삶'을 제목으로 고려인 문학의 전반을 개관하고 전망했다.

고려인 문학 특집 편집 기간 중 독립운동가 이종국 선생의 손자 리 스타니슬라브 시인이 카자흐스탄에서 타계했다. 참석자들은 리 시인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사)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연구회는 친일협력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을 반대하는 문인 150여명이 지난 2019년 8월



15일 '3·1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안에서 창립한 창작 및 연구 모임이다. 창립 후 이들은 독립운동가 기림 헌정시집 발간 및 정기적인 친일문학상 비판 학술세미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친일협력문인을 기리는 문학상 반대운동을 벌여 미당문학상(2019년)과 팔봉비평문학상(2022년)부터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조선일보에서 시행하는 동인문학상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

(민족문학연구회에서 글과 사진 제공)

본사편집부로부터: 이번 3호 '민족문학사상' 문예지 출간에 새고려신문사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다. 양 세르게이(양수복), 허 로만(허남영), 장태호, 이채인 등 분들의 글을 추천했다.

[우리말로 깨닫다]

참다운 어휘학자가 되는 길

저는 공부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는 제가 부탁한 것이고, 어떤 수식어는 출판사에서 붙여준 것이고, 어떤 수식어는 그저 제가 바랐던 것이기도 합니다. 수식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는 제가 아닐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제가 바라는 삶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에 대한 수식어로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것은 경희대학교 교수라는 말입니다. 직장이 경희대학교이고, 직업이 교수니까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건조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주로 제 전공을 붙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좀 더 저를 정확히 설명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수식어는 주로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가 됩니다. 제가 쓰는 칼럼이나 책에 제일 많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이라는 말도 저를 정확히 소개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주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자면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은 문화언어학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학자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좀 거창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저는 학자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인 반면에 학자는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자입니다.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고 있으니 학자가 맞습니다. 배워도, 공부해도 모르는 것이 늘어나니 학자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어휘(語彙)입니다. 어휘는 말의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휘는 무리의 의미입니다. 말의 무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휘 공부는 그 어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어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옛글을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언을 뒤지기도 합니다. 외래어 공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문이나 일본어,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가 수없이 우리말 어휘에 담겨있습니다. 사전은 제 공부의 원천입니다. 늘 사전을 읽습니다. 찾기도 하지만 읽는다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방언사전, 어원사전, 의태어 사전, 고어사전 등을 1페이지부터 읽기도 합니다. 사전을 읽어야 머릿속 사전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아침에 연구실에 오면 우선 사전을 읽습니다. 요즘에 주로 읽는 사전은 방언사전입니다. 저는 방언사전이 소설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전도 좋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사전이나 문화와 관련된 사전도 제 머릿속을 정리해 줍니다.

어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많은 분야의 책을 보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종교, 철학, 문화, 문학은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말 어휘 중에는 많은 어휘가 종교나 철학에서 왔습니다. 개념어는 종교와 철학을 모르고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불교책을 보고, 유학 책을 보고, 도교 책을 봅니다. 물론 성경도 보아야 합니다. 최근의 어휘 중에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어휘가 많습니다. 기독교 어휘 중에는 불경이나 유학에서 가져온 말도 많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기존에 있는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였으니 말입니다.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올 때도 도교의 어휘를 빌어왔습니다.

<어휘학자>라는 말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큰 학문 분야를 '학'이라고 하고 하위 분류를 '론'이라고 합니다. 즉 언어학 아래에 음운론, 형태론, 문법론 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휘도 <어휘학>이 아니라 <어휘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세부 분야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 삼는다면 학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성(音聲)은 '론'이 아니라 <음성학(音聲學)>이라고 합니다. 어휘론이 어휘학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어휘학자는 어휘와 학자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언어학자는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쓰는 어휘학자는 어휘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쓴 몇몇 책에 어휘학자로 제 수식어가 되어있습니다. 출판사에서 붙인 수식어여서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했지만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어휘를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니 어휘학자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휘를 제대로 공부해야겠습니다.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재외동포청 제공)

(출처: 재외동포신문)

동포청, 인천광역시에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 요청 이상덕 청장, 1월 31일 유정복 시장과 만나 국내동포지원 등 재외동포사업 협력에 박차 가하기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월 31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청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재외동포청의 다양한 동포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금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일(목) ~ 20일(일)간, 미국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동포청은 이번 대회에서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 청장은 국내 체류 동포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인천시에 거주하는 동포 지원을 위해 시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도 함께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동포청의 인천시 거주 동포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동포청은 지자체와 협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 소재 동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동포의 정주·정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릴 타임(Real time)'그룹과 '비트 사운드(Beat sound)'그룹이 음악적 결투에 나서며 한 무대에서 재즈와 록, 댄스뮤직, 팝 음악이 혼합되었다.

'비트 사운드'의 솔리스트인 스네자나 폼첸코와에게는 <뮤지컬 링>에서 이번 무대가 첫 데뷔 공연이 되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비트 사운드' 그룹은 실력을 과시하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했다.

스네자나는 "우리는 다양한 장르에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 그룹이다. 그래서 우리는 록, 팝, 재즈, 펑크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모든 청중들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3단계를 거치는 대결은 '발표', '본격적인 연주', '결승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각 그룹이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인 가운데 한 그룹은 예술성에 초점을 두었고, 다른 그룹은 연주의 기술에 초점을 두고 공연을 펼쳤다. '릴 타임'그룹은 경쟁자와는 달리 사할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룹으로서 8년간 지역 행사에서 활발히 공연을 해오고 있다.

<뮤지컬 링>의 특징은 관객들이 투표로 우승자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각 단계가 끝나면 관객들이 QR코드로 투표를 진행한다. 관객 중 깊은 인상을 받은 빅토리아는 "이 감성을 형언할 수가 없어요! 무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자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음악인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뮤지컬 링>은 아이디어와 소리, 카리스마의 대결이다.

이번 대결의 투표 결과 '릴 타임'그룹이 우승을 거두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Музыкальный ринг»

1 феврал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

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Музыкальный ринг» — настоящая битва двух групп перед 217 зрителями, которые и выступили в роли жюри.

На одной сцене смешались джаз, рок, эстрада и поп-музыка. В поединке сошлись группы Real time и Beat sound. Для солистки Beat sound Снежаны Фомченко это выступление стало дебютом на «Музыкальном ринге». Коллектив, отмечающий в этом году свое 10-летие, стремился показать мастерство и завоевать сердца зрителей.

«Мы играем в разных жанрах, так как у нас большая команд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исполнять и рок, и поп, и джаз, и фанк. Найдется что-то для любого слушателя», — рассказала Снежана.

Соревнование проходило в три этапа: «Презентация», «Оригинальное исполнение» и фина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Каждая групп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свой стиль: одни сделали ставку на артистизм, другие — на техничность исполнения. Real time, в отличие от соперников, хорошо знакома сахалинской публике. Группа уже восемь лет активно выступает на обла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собенность «Музыкального ринга» в том, что победителя определяли зрители. После каждого этапа они голосовали с помощью QR-кода.

«Эмоции непередаваемые! Энергия со сцены была такой мощной,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усидеть на месте. Мы танцевали и пели вместе с музыкантами»,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зрительница Виктория.

«Музыкальный ринг» — это битва идей, звуков и харизмы.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победу одержала группа Real time.

민관협력발전에 따른 10순위, 유즈노사할린스크가 극동연방관구에서 유일

러시아 연방 브네쉬에코노믹뱅크(국내경제은행)가 자체 민관협력발전 등급에 따른 도시들의 순위를 집계했다. 1위는 수르구트 도시가 차지, 2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로 극동연방관구에서 유일하게도 전국 10위 안에 들었다.

러시아 비즈니스컨설팅(러시아사업구축) 정보기관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평가기준과 결과를 전했다.

러시아 연방 국내경제은행은 제반시설구축, 산업, 사회적

분야 개선 및 기술잠재력 강화와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규모 기획 자금을 운영하는 러시아개발연구소이다. 러시아 연방 국내경제은행의 지원으로 국립민관협력센터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 러시아 도시들의 순위를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내 지역들과 208개의 도시들에서 실시된 481개의 기획들을 평가했다. 이러한 기획 시행으로 총 1조1,000억 루블리가 투입되었다.

연구가들이 평가한 항목들은 기획 경험, 제도적 환경, 민관협력개발을 위한 법적 규정 기반 등으로 순위 선정을 총합산 점수에 따라 집계해 수르구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이어 워로네즈 시가 3위에 올랐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л единственным городом в ДФО в рейтинге по развитию ГЧП

ВЭБ.РФ составил рейтинг городов по уровню развития в н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оказался Сургут, второе заня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стал единственным город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ый вошел в топ-10. Подробнее о критериях оценки и результатах сообщил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РБК.

ВЭБ.РФ — это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масштабных проектов по улучшен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укреплени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граждан.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ВЭБ.РФ подготовил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рейтинг городов, состоящий всего из десяти пунктов.

Эксперты оценили 481 проект, реализованн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208 городах и районах страны. Всего на реализацию этих проектов ушло 1,1 триллиона рублей.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ценивали следующие параметры: проектный опыт,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ая среда,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ая база для развития ГЧП. Места в рейтинге распределили по общему баллу. После Сургут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о есть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расположился Воронеж.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